

SBS 월화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

12월 10일(월) 첫 방송!

유승호 × 조보아
탄탄한 멜로와
유쾌한 코믹 스토리

유승호, 조보아 주연, 새 월화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극본: 김윤영, 연출: 함준호)가 12월 10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복수가 돌아왔다>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려 부당하게 퇴학당한 강복수가 어른이 돼 복수를 계획하고 학교로 돌아오지만, 복수는 고사하고 또다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엉뚱하면서 따뜻한 감성 로맨스다.

유승호가 학창시절 누명을 쓰고 쫓겨났으나 명예 회복을 위해 설송고로 복귀하는 강복수 역을 맡아, 소년 이미지를 벗고 로맨틱하면서도 유쾌한 남성미로 울거울 시청자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을 예정이다.

조보아는 학창시절 강복수의 첫사랑이자 현재 설송고의 기간제 교사 손수정 역을 맡았다. 수정은 고교 시절 전교 1등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반장이었으나 지금은 집세, 생활비, 임용고시, 할머니 병원비 등 온갖 생활고에 찌들어 팩트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복학생으로 돌아온 강복수를 선생과 학생으로 다시 만나면서 더 힘든 삶을 살게 된다.

곽동연은 고교 시절 강복수의 친구이자, 현재 설송고의 신임 이사장 오세호 역을 맡아 데뷔 후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한다. 오세호는 부드러운 외모에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젠틀맨이지만, 속으로는 학창시절 공부는 못해도 행복해하던 복수에 대한 애증과 열등감을 갖고 있다. 성인이 되어 돌아온 복수가 이번에는 설송고 이사장인 자신의 신념에 태클을 걸자 대립하게 된다.

이밖에도 천호진, 김미경, 김여진, 엄효섭, 김광규 등 이름만으로도 캐릭터가 설명되는 중년 명품 배우들이 출연한다. 김미경은 전교 꼴등인 아들 복수를 다그치기는커녕 항상 아들의 편에서 힘이 되어주는 강단 있는 엄마 정순 역을 맡았다. 중국집 소정각의 주인으로, 요리의 달인이기도 하다. 천호진은 복수의 스승이자 설송고의 비리에 항거하는 정의로운 교사 박 선생으로 분해 극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복수와 시종일관 대립각을 세우는 오세호의 엄마는 김여진이 맡았다. 이혼 위자료로 설송고를 받은 세호 엄마는 아들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세호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 엄효섭은 이사장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또 아랫사람에게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설송고 교장 김겨창으로 분해 학교 적폐의 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설송고 교감 송유타크 역은 김광규가 맡았다. 소심한 성격의 송유타크는 복수 때문에 매일 뒷골을 잡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재미를 줄 예정이다. 중년 명품 조연들과 함께 연준석, 유선호, 이강민 등 눈 호강 젊은 신인들의 활약도 <복수가 돌아왔다>의 기대 요소이다.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떠올림과 동시에, 다시 사랑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복수가 돌아왔다>는 울거울 시청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두드릴 예정이다.





'섭외'는 포맷과 명분, 타이밍이 중요

- 최영인 예능1CP

창사기념식에서 '올해의 SBS탐'상을 받은 데 이어, 12월 4일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방송산업발전유공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을 축하한다.

팀원 모두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다. 팀원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현존 최고의 예능 <미운 우리 새끼>, 월요 최강자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일요일 저녁시간대 SBS 예능의 부활을 이끈 <집사부일체>가 모두 예능1CP 프로그램들이다. 현장을 뛰어 다니느라 자리에 없는 CP로 유명하던데?

PD, 작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프로그램들인데 모두 잘 되고 있어서 행복하다. 프로그램은 '열려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의 '조화로운 협업'으로만 성자가 나온다. 기획이 완성되면 다음은 출연자 조합을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섭외한다. 섭외는 PD 생활을 오래 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CP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또 그 네트워크를 후배 PD에게 이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선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섭외는 그 결과물까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필요할 땐 촬영과 편집도 후배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야심만만> 시절부터 섭외가 뛰어났다. 노하우가 있는지?

늘 게스트 입장에서 생각한다. 섭외는 그들이 하기 편한 '포맷'을 만들고,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서로 원하는 '타이밍'을 맞추어 나가는 작업이다. 거절당했을 때는 '저축했다'는 마음가짐으로 길게 보는 장기 플랜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며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진심이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래도 거절 당했다면 타이밍이 안 좋은 것이니 기다리면 된다. 빠지지 않고,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저는 다행히 사람을 좋아해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었다. 의미도 있고, 시청률도 좋은 프로가 되면 섭외는 좀 더 쉬워진다.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가 힘들긴 하지만

<야심만만> 때는 설문이라는 장치가 있어 게스트들이 답을 맞히면서('명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포맷'을 만들었고, 한국영화가 흥할 때라 배우에겐 홍보 니즈가 있어 '타이밍'을 쉽게 맞출 수 있었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1990년 EBS에 공채 1기로 입사해서 94년에 <꼬마 요리사>를 연출했다. 1996년에 경력 공채로 교양PD로 입사해 1999년 당시 본부장의 권유로 예능으로 옮겨 <진실게임>을 만들었다. 2003년 <야심만만> 만 명에게 물었습니다를 만들어 재밌게 일하다가 2006년 연수 갔다 온 후 2008년 <야심만만 2>, 2010년 <밤이면 밤마다>, 2011년 <힐링캠프>를 만들었다. 2012년부터는 CP로서 <백년송민>, <백종원의 3대천왕>, <동상이몽 1, 2>, <판타스틱 듀오 1, 2>, <미운 우리 새끼>, <집사부일체> 등을 함께 기획했고, 다행히 좋은 결실을 맺었다. 올해는 <빅픽처 패밀리>, <무한행>, <가로채널>을 론칭했다. 모든 결과가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고, 그래서 늘 배우면서 도전한다.

<집사부일체>가 12월로 1년을 맞이했다.

"깡깡거리면서도 마음에 한 줄 남는 방송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모토다. 비슷한 듯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멤버들의 순수함과 각기 다른 매력, 사부들과의 케미가 제작진의 노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도 잘 전달된 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다. "삼인행(三人行)이면 필유아사(必有我師)"라 했다. 모든 이에게 배울 점은 있다. 각계각층의 사부들을 찾고 그들과 '재밌게' 만나면서 사인사색 우리 멤버들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계속 보고 싶다. 장수 프로그램이 되어서 우리 제작진도 매주 성장하고 싶고...

2019년 목표는?

딱히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즐겁게, 긍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한다. 결과는? "진인사대천명"이다.

SBS M&C 사명 변경, 새로운 결의



지난 2011년 10월 27일 출범한 미디어크리에이트가 SBS미디어그룹의 마케팅 창구로 재도약을 위하여 2018년 12월 1일부로 사명을 SBS M&C(Marketing and Communications)로 변경하였다.

SBS M&C 정해선 대표는 사명 변경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12월 3일 경영공유회에서 "국내 최초 민영 미디어렐업으로 지난 7년간 전 조직원의 노력으로 방송 3사 간 방송광고 판매 점유율과 라디오, IMC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방송광고 매출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우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BS M&C는 SBS미디어그룹의 마케팅 창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여 첫째, 그룹 내 비즈니스 허브로서 충실한 업무 수행 둘째, 차별화된 마케팅 제안을 통한 시장 리더십 확보 셋째, 업계 대한 전문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표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이 같이 노력하여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자고 강조하였다.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 더 파이널> 최후의 생존자는 윤준협



11월 30일(금) 제주에서 열린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 더 파이널> 대회에서 지원자 윤준협이 더 블랙 스완 상에 이어 영예의 대상까지 거머쥐며 새로운 모델테이너(모델+엔터테이너)의 탄생을 알렸다. 윤준협은 "대상을 받았다고 해도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발전하는 예술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 더 파이널>은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 MC 멘토 군단에 서장훈, 장윤주, 김원중, 김수로, 써니와 특별 MC로 배성재 S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불거리도 풍성했다. 본선 진출자 30인은 멘토 장윤주, 김원중, 김수로, 써니 팀으로 나눠 런웨이쇼, 뮤지컬 갈라쇼, 파워쇼 등 4팀 4색의 무대를 꾸몄다. 걸그룹 모모랜드와 위키미키는 새로운 모델테이너(모델+엔터테이너)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 공연도 선보였다.

SBS 플러스 <더쇼>, '2018 차세대미디어대전' 최우수상



<더쇼>가 '2018 차세대미디어대전'에서 K-POP 예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더쇼>는 지난 8월 세계 최초 8K UHD K-POP 콘텐츠인 '더쇼 8K UHD'를 제작, 올해 차세대미디어대전 'KOREA UHD AWARD 2018' K-POP 예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더쇼 8K UHD'는 현재 방송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풀 HD 해상도(약 200만 화소)의 16배인 약 3천300만 화소로 뛰어난 영상미를 느낄 수 있다. 또 다이아, 에이프릴, 라붐, 위키미키, 오마이걸 등 대세 걸그룹들을 비롯해 사우스클럽, 레오, 마이틴, 골든차일드 등 각 장르별 다양한 퍼포먼스와 볼거리를 함께 담아 눈길을 끌었다.

매년 다양한 UHD 콘텐츠를 제작해온 SBS 플러스는 이번 UHD 8K 더쇼 제작과 수상을 바탕으로 향후 K-POP과 초고화질 영상 기술의 결합을 통해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일본, 북미 및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가전 및 콘텐츠 시장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SBS, 10개월 연속 2049 시청률 채널 1위!

<미운 우리 새끼> 11월 2049 프로그램 전체 1위



SBS가 11월 평균 채널별 2049 시청률에서 1위를 기록, 총 10개월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1월 채널별 주요시간대 2049 시청률은 SBS가 2.56% (이하 수도권 기준)를 기록, 1위에 올랐다. 이어 2위 KBS2 1.90%, 3위 MBC 1.61%, 4위 tvN 1.48%, 5위 JTBC 1.33% 순이다. 개인 2049 시청률은 프라임 시간대 주요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시장성을 포함한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지표로, SBS가 2월부터 11월까지 2049 월평균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채널 파워를 확실히 입증했다.

11월 한 달간 프로그램별 2049 TOP 20을 보면, <미운 우리 새끼>가 8.1%로 지난달에 이어 전체 장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어 KBS2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6.77%, MBC <나혼자 산다> 6.75%, tvN <신서유기6> 6.56%, tvN 수목드라마 <남자친구> 5.89% 순이다.

SBS는 <미운 우리 새끼>를 필두로 8위 <집사부일체>(4.66%), 11위 <런닝맨>(3.92%), 12위 <백종원의 골목식당>(3.92%), 13위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3.83%), 16위 <TV시네마사의 찬미>(3.37%), 18위 <불타는 청춘>(3.17%), 19위 <궁금한 이야기 Y>(3.15%) 등 총 8개 프로그램이 20위 안에 포진하여 주요 시간대 프로그램 경쟁력을 방증했다.

특히, SBS 예능의 지속적인 상승세 속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수요 예능 1위는 물론, 전체 13위에 안착한 것이 눈에 띈다. 또 이종석, 신혜선 주연의 <사의 찬미>가 11월 27일 단 하루 방송만으로 16위에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교양에서는 유일하게 <궁금한 이야기 Y>가 두 달 연속 20위 안에 들었다. 한편, MBC는 5개, tvN, KBS2, JTBC는 각기 2개, KBS1은 1개 프로그램이 20위권에 들었다.

<애니메이션 런닝맨> 극장판 12월 5일 개봉 12월, 극장으로 달려라!



SBS의 인기 TV 만화 <애니메이션 런닝맨>의 극장판 '런닝맨: 풀로우의 역습'이 12월 5일(수) 전국의 극장에서 개봉했다.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차세대 리더 로커스 스튜디오를 비롯해, 입증된 실력의 제작진이 참여해 탄탄한 완성도를 자랑하는 '런닝맨: 풀로우의 역습'은 TV 시리즈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역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위험천만한 게임에 출전한 런닝맨들의 탈출 서바이벌이 주 내용으로, 새로운 캐릭터들과 다채로운 게임 미션으로 재미를 더했다.

개봉 전 시사회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이 어린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런닝맨의 첫 스크린 질주를 기대하게 했다. 기대감에 발맞추어 극장에서는 스페셜 딱지 증정 등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김병길 PD 대통령상 등 겹경사



<그것이 알고 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연출: 김병길)이 겹경사를 맞았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은 11월 22일(목) 서울 명동 한국YWCA 회관에서 열린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또 12월 4일(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은 최근 권력형 갑질과 폭행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디지털 성범죄 사업과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임을 밝혀내 사법 당국의 본격적인 수사를 이끌어냈다.

사우
기고

북한식 개혁 코드 '선택과 집중'

- 오기현(남북교류협력단 선임PD)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 자격으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 다녀왔다. 5년 만에 다시 방문한 평양은 소문대로 많이 달라져 있었다. 도로에 택시가 많아졌고, 멋진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 사람들 옷차림이 달라졌고, 발걸음이 활기찼다. 특히 소비재 상품이 매우 다양해졌다.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과자 종류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다양해졌다. 5년 전에는 중국 식품이 많았는데, 이제 중국 상표는 보기 힘들었다. 20년 전 처음 방북했을 때 백화점에 과자가 단 두 종류, '공사탕'과 '맛있는 과자'(비스킷 이름), 그리고 빵이 단 한 종류뿐이었는데 그야말로 상전벽해였다. 김정은 위원장 등장 후 적게는 연 1%, 많게는 연 3~4% 정도 성장했다고 한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 물론 북한 측은 우리에게 특별히 좋은 곳만 보여주었다. 사실 과거에도 좋은 곳만 보여주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 좀 더 실질적인 변화가 느껴졌다. 특히 사람들의 행동이 매우 재빠르고 활기찼다. 정신을 강조하면 느긋하고 여유로워 지지만, 물질을 추구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빨라진다. 경제관념이 바뀌고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다양한 소비재 상품의 출현은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공급자 중심 사회'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소비자 중심 사회'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 중심 사회'가 '개인 중심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불편한 점도 있었다.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해서 입국 절차를 밟는데, 핸드폰 사진과 노트북 문서 검열을 받았다. 내 핸드폰의 1,000장이 넘는 사진을 일일이 다 확인했다. 노트북에 저장된 문서도 검사했다. 출국 때는 촬영한 동영상도 확인했다. 과거에도 방송사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은 당일에도 호텔에서 다 검사했지만, 공항에서 세관원이 확인하는 경우는 없었다. 김정일 위원장 등장 이후 과거에 비해서 검열이 더 강화되었다는 느낌이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함경도 삼수갑산의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가 살아나면서 국가의 행정시스템이 복원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김정은 등장 이후에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통제시스템이 복원되고 체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앞두고, 국가 주도로 국가 통제 하에 엄격히 개혁과 개방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북한의 개방 방식을 '모기장 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모기장을 친 것처럼 필요한 것만 들여놓고 불필요한 것은 거르겠다는 것이다. 불편하기는 했지만, 정반대로 북한의 변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좀 더 솔직히 얘기해보자. 평양의 밤거리가 밝아진 것이 사실이고, 화려한 빌딩이 많이 들어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년 북한취재 경험에서 볼 때 '밝은 곳만 밝고, 화려한 곳만 화려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갔던 려명거리는 밤 10시가 될 때까지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빛났지만, 우리가 묵었던 고려호텔 뒤의 거리는 초저녁에도 여전히 어두웠다.

이런 현상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북제재로 자원 공급에 지장을 받고, 에너지도 부족하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분산투자하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중국에서도 경제개발 과정에 '선부론(先富論)'이라고 해서 일정 지역에 먼저 부자를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을 폈다.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꿈보다 해몽이다. 과거 2,000년 이상 한 민족으로, 또 앞으로 2,000년 이상 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 공동체'인 북한이 가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원한다.

'끝까지 판다', '마부작침'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상 휩쓸어



SBS가 한국기자협회 주최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기자연합회 주최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휩쓸었다. 보도국 탐사취재부 '끝까지 판다'팀(정명원, 이병희, 김지성, 김종원, 한세현, 유덕기, 박하정, 정성진 기자)은 삼성의 대규모 차명 부동산의 실체와 흔들린 조세정의 실태를 밝혀낸 연속 보도로 11월 27일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방송 부문을 수상했다. 또 뉴미디어국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심영규, 김학휘, 안혜민 기자)은 지난 14년간의 주요 과징금 사건 조사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의 과징금 할인 문제를 짚어 이달의 기자상 전문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팀(조창현 기자 포함)과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김경연, 이용한 기자 포함)은 11월 29일 열린 이달의 방송기자상 시상식에서도 같은 보도로 각기 기획보도 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뉴미디어 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하여 기쁨을 더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큰별 PD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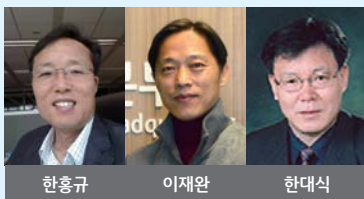


<그것이 알고 싶다> '화태에서 온 편지-국가는 왜 날 버렸나?'(연출: 이큰별)가 11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화태에서 온 편지-국가는 왜 날 버렸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생한 취재를 통해 재조명했으며, 특히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시의성 있게 제기하여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권력과 사법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사찰 방재 시스템', '특별사면과 평창' 만해언론상



'사찰 방재 시스템 문제' 연속보도(이호건, 김관진, 장민성 기자)가 11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제2회 만해언론상 시상식에서 일반보도 부문 만해언론상을 수상했다. 또 '특별사면과 평창'·'삼성의 은밀한 뒷거래' 연속보도(전병남, 한승희, 이한석, 정경윤, 강청완, 이세영, 민경호, 이현영 기자)는 탐사기획보도 부문 만해언론상을 수상했다. 만해언론상은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비판과 감시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한 언론과 언론인에게 수여한다.



한홍규

이재완

한대식

1월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미디어사업팀 한홍규 선임매니저, 윤리경영팀 이재완 선임매니저, 총무팀 한대식 매니저가 1월에 안식년을 맞는다. 한홍규 선임매니저는 1990년 현재의 아카이브사업팀인 데이터정보부로 입사하여, 각종 방송 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2004년 멀티미디어팀으로 옮겨 당시 막 도입된 지상파 데

이터방송을 활용한 커머스 사업을 기획 및 추진했다. 이후 지상파DMB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지상파DMB를 통한 홀소평사업을 유치하여 회사 수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유공상을 받았다. 최근까지도 미디어사업팀에서 지상파DMB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 고화질DMB 론칭 등 방송계 발전에 공헌했다. 이재완 선임매니저는 1991년 편성관리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총무부, 인사1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SBS가 초기에 기반을 잡는 데 일조했다. 특히 아카이브팀장, 윤리경영팀장을 하면서 아카이브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사 업무의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한편, 해박한 업무 지식과 다정다감함으로 팀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재완 선임매니저는 예술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보낼 계획이다. 한대식 매니저는 1996년 일산제작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시작으로 SBS 가족이 되었다. 기계 설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사의 동력을 쉼 새 없이 제공하는 분야이다. 한대식 매니저는 묵묵히 SBS의 기계 설비를 지켜 왔으며, 그런 플랜 중에도 후배들의 요청이 있으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왔다. 성실 그 자체인 한대식 사우에게 멋진 인생 2막을 기대해 본다.